

## “AI 유입 막아라” 칼바람속 소독약·생석회 뿌리며 방역 총력전

르포·해남·함평 철새 도래지, 전북 접경 장성 가보니

### 철새 이동경로 주시 철통 차단 안간힘

20일 해남군 고천암 방파제 인근 도로를 오가는 흰색 방역복을 입은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직원들은 숨 돌릴 틈이 없어 보였다. 방역요원들의 얼굴과 손은 매서운 칼바람에 빨갛게 되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직원들은 원거리용 방역기(지름 1.5m·길이 3m)가 실린 트럭에 올라 방파제 일대 철새가 있는 지점을 찾아 다니며 소독약을 뿌렸다. 대형 방역기로 한 번에 3000ℓ 씩, 100m까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뿌려대고 있어도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는 게 방역 요원 설명이다. 차량 소리에 놀란 가창오리, 독수리 등 철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장관’을 감상하는 것은 이들에겐 사치나 다름없었다. <관련기사 2·6·18면> 함평군 대동면 대동저수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방역요원들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뿌리지는 소독약으로 축축히 젖은 방역복을 입고 저수지 주변을 돌며 소독에 여념이 없었다. 방역 대원들의 경우 전남의 경계인 전북 고창·부안 뿐 아니라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부터 모든 신경이 날아다니는 철새 이동 경로를 살피는데 곤두서 있었다. 전남도내 철새도래지는 국내 대표 가창오리 도래지인 금호호와 영암호를 비롯 ▲순천만 ▲주암댐 ▲강진만 ▲덕량만 ▲함평 대동저수지 ▲해남 고천암 ▲나주 영산강 ▲고흥 해창만·고흥항 등 모두 26곳에 이른다. 전남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고재상 수의사는 “고창 가창오리 폐육을

원인이 AI 때문이라고 확인돼 철새가 있을만한 곳이면 집중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혹시라도 AI가 전남으로 넘어올까봐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새 도래지뿐 아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사육되는 닭·오리만 9000가구에 3190만 마리에 이른다. 전국 최대 규모로 자칫 AI 방역만이 뚫릴 경우 건장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가득하다. 이 때문에 고창군과 인접한 장성군도 초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다. 고창에서 인접한 도로 중 가장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장성군 서삼면 장성물류 IC 인근 도로에 세워진 방역 초소에는 면사무소 6명 직원이 모든 업무를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투입됐다. 전남도도 유입을 막기 위해 장성뿐 아니라 영광에도 ‘도 경계 소독장소 소독대상 확대 및 철새 서식지 소독 강화’라는 공문을 보내 사료 차량 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한 방역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공무원 김모(여·42)씨는 “면사무소 가용 인력이 방역 작업에 투입되면서 사실상 일반 업무는 마비상태지만 AI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면서 “도로에 뿌려진 소독약품이 얼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어 뜨거운 물을 섞어 뿌리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아울러 20일 ‘일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된 뒤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 진출 입로에 소독용 분말 생석회를 뿌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틀째 농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닭 사육농가 임모(56·장성군 삼서면)씨는 “이동제한 조치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3년 전 AI 때는 사료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AI 확산을 된 것을 생각하면 발 빠른 조치”라면서도 “농장 옆 저수지에도 철새가 찾아오는데 혹시나 키우는 닭들이 감염될까 봐 걱정된다”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고창과 접경지역인 장성군 서삼면 오리농가 입구에 장성축협 직원들이 차량 통행에 대비해 소독용 분말 생석회를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고창 가창오리도 AI 감염 확인...철새 도래지 비상

#### 전국 확산 우려...호남지역 긴급 방역비 軍 지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폐사한 가창오리에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날아다니는 철새에 의한 AI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는 20일 “AI 발생지 인근의 동립저수지에서 폐사한 가창오리 사체를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고창 씨오도 농장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창오리 폐의 이동경로에 따른 AI 확산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전남·전북과 광주에 발생중인 일시 이동금지 명령을 예정대로 20일 자정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에서 이동금지 명령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AI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동금지 명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해제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또 농식품부는 야생오리떼가 이번 AI의 발병원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창오리의 주요 이동경로를 따라 영

암호, 동립저수지, 금강호 등 전남·북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집중예찰을 시행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37곳과 그 주변을 소독하고 인근 농가에도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영암호와 금호호 등 가창오리 주요 철새도래지가 26곳에 달하는 전남도 또한 비상이 걸렸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간담회를 열어 “AI가 야생 조류로부터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도내 철새 도래지 인근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남도는 또 2월 말까지 수렵장으로 허가가 난 고흥과 해남, 영암 등 3

곳에 대해 수렵금지 통보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부는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전북 5억원, 전남 3억원, 광주 2억원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소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국방부도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호남지역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전남과 전북 지역 부대 장병을 투입해 군·경 합동 이동통제소 34개를 운용하고 있고 향후 72개 군·경 합동 이동통제소를 추가로 운용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첫 집단 손해 소송 제기

#### 카드 2사 경영진 사의 부정사용액 전액 보상

카드 3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보이소피싱이나 스미싱의 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대응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6·9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경 정보 유출 당사자 격인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KCB)와 함께 고객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우선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들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어 전망이 밝다. 실제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로 알려진 강모씨 등 130명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에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카드 3사는 책임자 처벌 요구와는 별도로 이번 사태로 말미암은 카드 부정 사용 등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카드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또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빚은 KB금융그룹 경영진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농협카드의 손경익 사장(농협은행 카드 분사장)도 이날 스스로 물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가람여행사 (남구 봉산동 이마트 2층) 062)653-5230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C여1층) 062)431-0102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세요!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히니무너를 위한 지역별 BEST NO.1 상품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3박5일)

<p>[AVPF01-ZA1] [하나라페주일] 앙코르왓 4일/5일</p> <p>HNT 599,000원 ~</p> <p>‘일라버드’ 20석 한정앙코르왓+4대특시</p> <p>●호텔: 골디나 호텔 또는 동급 무숙 ●특진: 5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증명서 발급, 편선사자</p>	<p>[AVPF01-ZA2] [하나라페주일] 앙코르왓 4일/5일</p> <p>HNT 799,000원 ~</p> <p>‘나눔여행’ 디얼공동체전선사자+4대특시</p> <p>●호텔: 앙코르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무숙 ●특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증명서 발급, 편선사자</p>
<p>[AVPF01-ZAA] [하나라페클래식] 앙코르왓 4일/5일</p> <p>HNT 999,000원 ~</p> <p>‘360도모션’ (현명)사자+4대 특시</p> <p>●호텔: 에리호텔 또는 동급 무숙 ●특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와일오브 앙코르, 쇼, 한방대사자</p>	<p>[AVPF01-ZAD] [하나라페클래식] 앙코르왓 4일/5일</p> <p>HNT 1,149,000원 ~</p> <p>‘다트림’ 캄보디아+4대 특시+쇼+호텔</p> <p>●호텔: 앙코르메트로호텔 또는 동급 무숙 ●특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와일오브 앙코르, 쇼, 한방대사자</p>

하나골프

부영CC / 포키트라CC / 앙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p>[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399,000원 ~</p> <p>●매주 수요일 / 토요일 ●호텔: 에라 호텔 또는 센투리 호텔 투숙</p>	<p>[AVGF01-ZA] [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749,000원 ~</p> <p>●매주 수요일 / 토요일 ●호텔: 앙코르 팰리스 호텔 또는 동급 호텔 투숙</p>
--	---

[ABW103-8B6] 푸켓 6일 빈안트리 풀빌라(혼합형) 1,500,000원 ~

[AAW146-TGJ] 코스마이 6일 인피니티 펜트하우스 풀 스위트 2,749,000원 ~

[PPW413-OZ/KEL] 팔라우 6일 로얄리조트 1,799,000원 ~

[IHW201-OZ/HAO] 하와이 오아후 6일/7일 퀴카피올라니 1,720,000원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의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공평동 1번지 (우)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블로그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